정보보호에 5년간 1兆 투자… "선제적 보안 새 기준 구축"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중심 운영
24시간 작동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보이스피싱 등 AI 기술 접목해 대응
'클린존' 서비스로 기업보안 강화

KT 정보보안실장 황태선 상무가 KT 고객 안전·안심 및 정보보호 브리핑에서 'KT 정보보호 현황 및 향후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KT

KT가 5년간 1조원 이상을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한다. 통신사 중 유일하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해온 KT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통신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KT는 15일 서울 광화문 근처 센터포인트에서 열린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 고도화와 통합 관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투자계획은 ▲AI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글로벌 협업 및 진단 컨설팅 확대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체계 완성 ▲보안전담인력 확충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로 나뉜다.

특히 KT는 자체 개발한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선제적 보안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침투 테스트를 담당하는 'K-오펜스'와 통합 보안 대응체계인 'K-디펜스'로 구성된다.

KT 황태선 정보보안실장(상무)은 "정기적 모의해킹과 취약점 개선활동을 정례화하고 3자 정보보호 점검을 통해 외부 위협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KT는 전사적 기술 역량과 관제 인프라를 총동원해 국내 최초로 IT와 네트워크를 통합한 사이버보안센터를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 관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황 상무는 "2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제로트러스트' 체계를 보강해 사용자·디바이스 검증과 최소 권한 부여 원칙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탐지와 스팸 대응에도 AI 기술을 접목한다. KT는 올해 하반기, 통신사 최초로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2.0'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화자인식과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통해 AI 위조 음성을 판별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학습한 2만5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문맥 분석을 수행한다.

현재 탐지 정확도는 통신사 최고 수준인 91.6%이며, "상반기에만 약 710억 원 규모의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2.0 버전에서는 정확도를 95%까지 끌어올리고 범죄 피해 예방 효과를 연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팸 문자 차단에도 AI가 투입된다. 황 상무는 "AI가 등록한 키워드는 전체 차단 키워드의 5.5%에 불과하지만 전체 차단 건수의 45.9%를 차지했다"며 높은 효율성을 강조했다. 또한 악성 URL·발신번호·발송사업자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차단하는 'AI 클린메시징시스템(AICMS)'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 도입 후 일평균 스팸 발신번호 차단률은 66%, 문자 차단 건수는 188% 증가했다.

기업 보안 서비스도 강화된다. KT는 자체 보안 위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클린존' 서비스를 통해 디도스(DDoS) 공격을 방어하며, "타사 대비 2배 이상의 디도스 방어용량을 해외 관문구간에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방어 용량을 두 배 이상 확충하고, 고객이 직접 위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8월 중 선보인다.

또한 'AI 메일보안' 서비스는 AI가 메일 발신자·본문·첨부파일·URL 등을 실시간 분석해 피싱·랜섬웨어·APT 공격을 탐지 후 차단한다. 지난 1년간 약 1만5000건의 악성 메일을 차단했으며, 9월에는 대형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위협 리포트 자동 요약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KT의 이현석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며 "KT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갤럭시 Z' 시리즈 사전예약 개시

이통3사, 차별화된 할인·혜택으로 고객유치 나선다

SKT 티빙 3개월 무료이용권 제공
팝업부스서 멀티태스킹 체험 등 진행

KT KT닷컴서 '1TB 상품' 단독판매
개통 시 출고가 최대 50% 선감면

LG U+ AI 서비스 6개월 무상 제공
갤럭시 워치 36개월 할부금 전액할인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을 살펴보는 사람들의 모습. /SKT

통신3사가 일제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각 사는 고가 프리미엄 단말에 맞춰 콘텐츠 구독, 디바이스 할인, AI 서비스 등 차별화된 혜택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섰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21일까지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개통은 22일부터 시작된다.

SK텔레콤은 사전예약 개통 고객 전원에게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쿠폰은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T월드 매장에서 개통한 고객에게는 삼성 정품 슬림 케이스도 증정된다.

또한 SK텔레콤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건대입구점·코엑스몰 등지에서 팝업 부스를 운영해 멀티태스킹 체험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사전예약을 완료하면 영화상품권, 스타벅스 쿠폰 등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단말 저장용량 업그레이드(더블 스토리지) 혜택도 함께 제공되며, 갤럭시 Z 폴드7 1TB 모델은 15만84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는 갤럭시 워치8 시리즈 15만원 할인권, 티다문구점 10만원 이용권(선착순 500명), 광복 80주년 기념 액세서리 기프트(1000명 추첨) 등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로 결제 시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며, 삼성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선착순 700명에게는 최대 10만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KT는 KT닷컴 단독 판매 상품인 1TB 모델을 앞세워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기본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제공되며, 삼성닷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치8 10% 할인 쿠폰과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이 함께 제공된다. 콘텐츠 구독 혜택으로는 구글 AI 프로 6개월, 윌라 3개월 무료 이용권이 포함되며,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정품 보호필름 1회 부착 서비스가 지원된다.

KT는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개통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선감면하는 구조로, 24개월 뒤 기기 반납과 교체를 조건으로 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최대 60만 원 보장 보험도 함께 제공된다.

KT닷컴에서는 5G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4개월간 월정액 7% 할인, 중고폰 보상 최대 25만 원 추가, 단말 쿠폰 최대 10만원 적용 등 온라인 전용 혜택이 제공된다. 사은품은 갤럭시 버즈FE, 정품 배터리팩 등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친구 추천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상품권 등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KT는 단말 출시일인 22일, 다양한 가전제품을 할인 또는 무상 제공하는 '가전구독 초이스 요금제'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 사전예약 고객에게 AI 서비스 특화 혜택을 제공한다. '유독 픽(Pick) AI'를 통해 AI 검색 서비스 '라이너'와 디자인 도구 '캔바'를 6개월간 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익시오(ixi-O) AI 통화 앱이 선탑재돼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디바이스 혜택으로는 갤럭시 워치8 40㎜ 모델의 36개월 할부금 전액 할인 혜택이 있으며, 유플러스닷컴을 통한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최대 20만원 쿠폰, 삼성카드 최대 9만원 캐시백, 중고폰 반납 시 신세계상품권 15만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순금 1돈, 네이버페이 5만원권, 팔빙 젤라또 파르페 등 경품이 제공된다.

'유플러스LIVE'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사전예약 혜택을 소개하며, 신동·곽범·가요이 키우기 등이 출연한다. 오프라인 체험존은 '일상비일상의틈byU+'에 마련되며, 유플위크 기간 전국 매장에서 체험 및 사전예약을 마친 고객에게는 커피 7잔이 증정된다.

또한, '폰교체 패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출고가의 최대 40%를 보장하는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이 함께 제공되며, 사전예약 고객 대상 '미리드림' 서비스로 단말 조기 수령도 가능하다. 슬림 케이스 사은품, 멤버십 신규 고객 웰컴 혜택, 유플투쁠 특별 프로모션 등도 함께 운영된다. /김서현 기자

LG U+, 공항철도에 '이음 5G' 구축

철도 통신체계 5G-R 전환 기반 마련
대용량 데이터 전송·IoT 설비관리 가능

LG유플러스는 공항철도에 5G 특화망(이음 5G)을 구축하고, 이를 국내 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철도 통신체계의 5G-R 전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구축으로 공항철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5G 특화망을 실제 운용에 적용하게 됐다. 공항철도는 수도권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 28만6000여명(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이용객 11억명을 기록 중이다.

LG유플러스는 공항철도 검암사옥과 용유 차량기지에 특화망 장비를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양측은 연내에 열차 운행정보를 실시간 송수신하는 차상 장비를 5G 기반으로 개조·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유심(USIM)을 국내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동안 공항철도는 LTE-R 무선망을 사용해 왔으나, 5G 특화망을 도입하면서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설비 관리 등이 가능해졌다.

/김서현 기자

NHN두레이, SaaS 글로벌 AI 서비스 활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금융 내부망서 해외 LLM 사용 가능

엔에이치엔(NHN)두레이는 국내 협업툴 가운데 최초로 금융 내부망에서도 해외 리전에 위치한 초거대 언어모델(LLM)까지 직접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 첫 사례로, 보안·정책적 제약을 넘어 글로벌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번 연동은 우리금융그룹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NHN두레이는 올 3월부터 우리금융그룹의 공식 협업툴로 도입됐다. /김현정 기자 hjk1@